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동북권 아카이브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
동북권 아카이브

품을 품은 사람들

정규민 지음

꿈을 품은 사람들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동북권 아카이브

품을 품은 사람들

정규민 지음

이 책은 2020년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동북권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수락해주신 품 관계자 여러분과
기획을 함께하고 원고를 작성해주신
정규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며_품의 십대가 품의 활동가로 ... 009

 품, 에 대하여 ... 010

 사람을 통한 배움_오지산 ... 021

마을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청년_장서영 ... 031

 환대, 돌아봄과 탐색_백신영 ... 039

품의 역사와 사람이 흐르는 참맑은물살캠프 ... 047

 반겨주는 사람, 열려 있는 공간_서인석 ... 057

 마을공동체의 원형을 지키는 품_우수명 ... 067

 나오며_사람의 품 ... 075

폼의 십대가 폼의 활동가로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폼에 처음 왔다. 폼의 십대로, 활동의 참여자로 시작했다. 내가 어느덧 26살이 됐고, 폼의 활동가라는 역할로 폼의 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했던 이 과정이 생각보다 버거웠고 판도 커졌다. 일이라는 것은 항상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욕심이 생기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수정되고 추가된다. 딱 이 작업을 진행하는 시간이 나에게 그랬다.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와 함께한 동북권 아카이브 《폼을 폼은 사람들》은 폼의 활동가로 제안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첫 작업이다. 그래서 더 시행착오도 많았고, 원고를 정리하는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띈다. 그래도 내가 학생 때부터 계속 드나들며 부대꼈던 폼을 나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한 마음이 든다. 솔직히 ‘잘’에는 자신이 없지만 내 최선의 노력과 애정으로 폼을 이야기했다. 내가, 그리고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마주한 폼의 이야기가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

품, 에 대하여

품은 올해 28년 된 청소년 단체다. 1991년 ‘노래 품’으로 시작해 1992년 ‘품 청소년 놀이문화연구소’로 정식 개소했고, 2000년에 현재의 ‘품 청소년문화공동체’로 이름을 바꾸며 2020년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활동 초기에는 전국을 무대로 문화예술 교육과 캠프를 진행했는데 1998년 우리나라 최장수 청소년 축제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의 전신인 ‘강북청소년 거리 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품의 사무실이 위치한 강북과 도봉을 주무대로(주로 강북) 활동하기 시작했다.



노래 품
멤버들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또한 2006년부터는 नेपाल에 'NGO NEPAL PUM'을 설립하여 마을의 주민, 청년들과 함께 인도적 지원과 원조가 아닌 नेपाल의 가능성, नेपाल의 가치, नेपाल의 문화를 지키고 이어가기 위한 작업과 시도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매년 겨울 '오~ 히말라야'라는 여행을 통해 기존의 익숙한 여행의 방식을 넘어선 नेपाल의 문화, 사람, 역사를 만나는 여행을 실험하고 있다. 품 역시 नेपाल을 만나며 지역과 마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고 전 지구적 사고, 연결된 사고를 하도록 자극받았다.

2018년부터는 서울시 제1호 동북권역 '마을배움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며 활동 주체인 청소년을 포함하여 예비청년(19세)과 활동가라는 확장된 주체를 받아들였고, 기존의 활동무대인 강북을 넘어 동북4구를 무대로 새로운 시도와 확장을 위한 과정들을 만들고 있다.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네팔 청년들과 함께한 워크숍

왜 청소년은 항상 보호의 대상으로 얘기될까? 왜 사업의 대상자로만 참여할까? 그들이 주체로 존중되고 인정될 수는 없을까? 품이 28년간 품어오고 있는 질문이자 고민이다. 품은 계속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주체로서 경험하고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을 고민했다. 품의 역사 속에서 이 고민을 풀어내는 방법(활동)은 다양했지만, 이 다양한 방식의 한 가지 목적은 함께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참여자가 아닌 주체로서 경험을 해 보는 것,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활동명	사업 운영기간	주요 활동 소개
청소년 축제기획단 '노올자'	2001 ~ 2007	대한민국 최초의 청소년 축제기획단으로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1년간 추락을 준비하며 다른 축제 탐방, 축제와 기획에 대한 학습, 리허설 등을 실행했는데 노올자의 과정이 '추락'에 맞춰 있어 1년의 과정이 추락 하루로 끝이 났기에 아쉬움이 남는 과정이었다.
강북청소년 문화놀이터 기획단	2008 ~ 2010	'일상의 축제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매일 1회 놀이터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노올자'와 마찬가지로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핵심 주체였다. 품은 이 과정에서 마을과 마을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시작했다. 축제와 기획에 대한 공부, 마을에 대한 공부와 탐방을 연간과정으로 진행했다.
무늬만학교	2011 ~ 2014	'놀면서 공부하는 무늬만학교'라는, 인문학을 매개로 한 주말형 대안학교를 운영했다. 품의 십대들이 '문화기획자'에서 '삶의 기획자'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 주말에만 진행되어 일상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제기되어 2014년에는 평일과정으로 전환됐다.

십대문화 기획단	2012 ~ 2018	'자기 삶을 기획하는 기획자 십대문화기획단'은 자기 삶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사람들을 만나 학습하는 연간활동을 진행했다. 품에서 진행하는 축제는 개인의 욕구, 상상, 시도를 풀어내고 나누는 자리로 바뀌었다. 추락은 목표가 아닌 하나의 과정이 되었으며 십대들이 자기 삶을 기획하는 삶의 기획자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지구별 여행학교 '바칼로레아'	2013 ~ 2019	하나투어와 함께 진행한 청소년 여행지원사업이다.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행기획 과정과 공유의 자리를 지원했다. 패키지 여행,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에서 벗어나 여행 주제와 장소를 설정하고 일정을 계획하는 등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품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주체성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 '일상이 지루한 십대', '학교에서의 공부가 아닌 새로운 경험과 시도를 하고 싶은 십대', '놀면서 배우는 즐거운 상상' 등의 내용을 담은 품의 활동들은 대규모 홍보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청소년을 모을 수 있었다. 친구들은 문구에 끌려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자신에게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모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구로 청소년들과 1년 과정을 꾸려가기 어렵다. 일단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다. 주제와 내용에 흥미를 느끼더라도 주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모여 1년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학교에, 학원에, 입시에 떠밀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다. 각자가 저마다의 개성과 고유성을 지녔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리와 사람은 거의 없다. 보편적으로 옳다고 얘기되는 환경 안에서 보편적으로 옳다고 얘기되는 선택을 한다.

대부분의 친구들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존중과 공감을 받기란 매우 어렵다. 나 역시 고등학교 때 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 다행히 혁신학교를 다녔기에 학교 안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

을 수 있었고 품의 선생님, 형, 누나와 대화 나누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요즘 아이들한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같다.

청소년 시기에 삶의 주체성을 발견하는 것, 주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 십대 친구들에게 ‘주체성’을 얘기하고, 경험을 쌓는 과정을 함께하자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품은 십대 친구들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현실적 상황과 선택지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솔직한 상황을 둘러보고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품 청소년문화공동체는 ‘함께’의 경험과 가치를 매우 중요시한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이 생겼지만, 품이 처음 생겼을 당시만 해도 모든 청소년 축제의 공연은 대회 방식이었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봐야 했고, 축제 공연이 끝난 후에는 시상도 진행했다. 품은 기존의 ‘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응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방식을 고민했고, 그러한 지향들이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청소년 연극제’ 등에 반영돼 품이 기획하고 진행한 축제는 경쟁과 시상 없이 함께 응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함께’의 경험을 단순히 축제로만 풀어낸 것은 아니다. 품의 모든 활동과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지향을 풀어내려고 노력했다. ‘함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서로의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른 상황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하고, 맞춰간다는 것은 아무리 이 과정이 익숙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다. 경쟁이 익숙한 현대의 문화에서 청소년들은 함께의 경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결이나 과반수의 의견을 따르는 데 익숙하다. 그 과정에 소수의 의견은 어떻게 존중

하고 조율해야 할지 합의하는 과정이 더해져야 한다.

품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다수결이나 혹은 단순한 의견결정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개개인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회의를 하기도 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함께 고민하는 경험을 쌓는다.

품은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단체다. 품에서 활동한 십대 중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은 십대는 없을 만큼 각자의 기록을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단체다.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을 성장시키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품의 모든 사업과 활동 끝에는 마무리 발표회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모아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책자를 만든다. 기록과 공유는 품의 역사에서, 활동에서, 과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다. 개인의 기록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개인의 기억, 감성, 생각에 대한 정리로 끝이 난다. 하지만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 타인과 교감하고, 다른 생각과 의견을 접할 수도 있고, 확장된 시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품은 정량적 수치와 계량화된 성과보다는 개인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단체다. 그렇기에 기록과 공유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이야기 속 성과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한순간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기록을 통해서만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가 쌓이고 공유되면 새로운 성과가 드러난다. 28년간 품이 수치로 성과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이들이 품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것은 개인의 이야기를 잘 기록하여 함께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폼은 28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 만남과 활동이 인연이 되어 현재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많다. 그런 사람들 중의 한 명인 내가, 폼의 십대로 인연을 시작한 내가 이제는 폼의 활동가가 되어 나의 폼을 돌아보고 28년 폼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다. 그리고 비교하고 싶었다. 폼의 역사 속에 자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폼에 대한 생각, 가치, 의미, 배움은 무엇인지, 내가 폼을 만나며 느낀 것과 무엇이 비슷하고 또 다른지 발견하고 싶었다. 이렇게 발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공유하고 싶었다.

또한 폼의 활동과 생각을 정리한 발간자료가 폼 20주년 책 이후에는 멈춰 있었다. 폼의 활동과 만남, 지향과 가치는 변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자료는 잠시 멈춰 있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현재 폼에게 필요한 서사는 무엇일까, 폼 20주년 정리 이후 다시 발견하고 베풀어야 하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며 원고를 써 내려갔다.

우리는 많은 상상과 기대를 한다. 그리고 항상 그 상상과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야 한다. 이번에 폼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이 나에게 그랬다. 내가 10년간 알아온 폼을 기반으로 목차를 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엮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상대로 과정은 진행됐다. 하지만 그 안에 촘촘한 고민의 과정이 필요했고, 상상과 실제의 간극이 생겨났다.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내용을 엮는 것이기에 간단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엮어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이었고 그 과정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생각했던 목차를 3번이나 변경했다.

그럼에도 상상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어려움이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들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폼, 그들이 생각하는 폼의 의미와 필요성이 나를 계속

흔들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가벼움만으로는 이 과정을 대할 수 없었다. 내 상상처럼 쉽게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그 간단하지 않은 과정에 기쁘게 뛰어들었다.

익숙해지면 무뎠진다는 말이 있다. 내가 폼과 함께한 10년이 그랬다. 폼 안에서 일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폼의 문화가 익숙하고 폼의 사람들이 편해서 폼의 배움과 생각에 나도 모르게 무뎠졌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인터뷰이들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경험을 기꺼이 나눠주었고, 나는 그들 덕분에 폼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과정과 시간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내가 십대부터 시간을 보내온 소중한 곳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이자 나만큼 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과 그 기록을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인터뷰이는 폼의 후원자인 ‘주주’와 ‘주주’의 자녀들로 구성했다. 폼은 후원자 대신 ‘주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후원자라는 단어가 갖는 일방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어려워서 돕는다는 느낌, 지지나 가치의 공유보다는 물질적 지원이 우선시되는 느낌 때문에 후원자 대신 ‘주주’라고 부른다. 일반 주식회사처럼 폼에서도 ‘주주’는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는다. 다른 점이 있다면 폼은 수익을 배당하지 않고 폼의 가치를 배당한다. 폼의 ‘주주’ 90% 이상이 폼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애정을 가지고 폼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주주’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폼을 솔직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통한 배움

오지산

(2011~2012, 2014 무늬만학교 참여)

무늬만학교는 놀과 공부, 문화와 인문학을 연결한 품의 대안학교였다. 처음에는 주말형 대안학교로 3년간 진행했고, 이후에는 평일과정으로 1년간 진행했다. 무늬만학교는 이전 품에서 주로 해왔던 문화기획의 방식에 십대들의 인문학적 상상과 학습 과정을 더해 진행했다. 그리고 지산이는 유일하게 무늬만학교 주말과정과 평일과정에 모두 참여했던 십대이다.

“중학교 1학년 때 ‘오~ 히말라야’로 품을 처음 알게 됐죠. 그때 품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 형, 누나들을 처음 만났고 그 만남이 저에게 매우 좋은 시간으로 남았어요. 그렇게 다른 활동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찾아오게 됐어요.”

품에 어떻게 처음 왔고, 왜 계속 왔는지 첫 질문에 대한 지산이의 답이다. 지산이와의 인터뷰는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났다. 품의 활동과 의미, 기억을 질문했을 때 지산이의 대답은 사람으로 시작했고, 사람으로 끝났다. MBIT에서 자신은 가장 외향적인 INFP라고 얘기하는 지산이는 왜 계속 품의 사람들을 얘기한 것일까, 어떤 과정이 지산이에게 이런 대답과 생각을 하게 한 것인지 호기심을 갖고 지산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품에서 얻은 동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무늬만학교 활동을 처음 했어요. 무늬만학교의 활동은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과정들이 참 많았어요. 어리기도 했고, 품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같이 활동하는 형, 누나, 친구들이 각자의 생각을 편안하게 표현하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시도해봐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고 따라 하고 싶은 동경심이 생겼죠.”



무늬만학교 1기 입학식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지산이

지산이는 품의 다른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부족하고, 어려워하는 것에 도전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고 동경심을 가졌다고 했다. 나 역시 품에 처음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극받고 배움을 얻었다. 항상 모임이 끝난 후 “오늘 어땠어?”라고 물어보는 형을 보며 나 역시 동생들에게 먼저 질문할 수 있는 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산이는 함께 활동한 사람들뿐 아니라 활동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생각했다고 얘기했다.

“품에서 활동하면서 마을 사람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선배들, 스승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들한테도 역시 배울 점이 많았지요. 품을 통해 만나고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제가 닮고 싶은,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은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산이에게 품의 활동은 다른 생각, 경험, 태도를 배우는 기회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대학이나 직장 같은 보편적 성공의 기준이 아닌 삶의 다양한 선택지를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었다.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 근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산이는 이것을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했다.

나를 바라보고 질문하는 사람

“처음엔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는 제 강점이 됐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줬던 품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것이 제 강점이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산이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잘하지 못해도 다그치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려준 시간이 안정감을 줬다고 했다. 지

산이가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산이는 노력하고 품은 기다리는 동안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안정감이 생겼다.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십대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십대 지산이에게는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품이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힘들고 우울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품 사무실에 찾아가서 힘든 것, 우울한 것, 어려운 것을 얘기하면서 평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기댈 곳이 되어주었던 곳이 품이에요. 품이 있었기에 나는 타인에게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품에서 활동한 사람들 중에 눈물 한번 흘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 역시 품에서 울었던 기억을 세자면 손가락, 발가락을 다 합쳐도 모자란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이유로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는 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품에서 눈물을 흘리는가이다.

품의 선생님들은 대화할 때 주로 질문을 하고, 상대가 그 질문을 충분히 곱씹어 솔직한 답변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던 자기 감정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과 타인의 설명을 통해 알아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품 선생님들은 지산이의 감정과 상태를 이야기해주지 않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산이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도록 만들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힘, 노력하는 근력을 만들어준 품

“무늬만학교 평일과정을 시작하며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것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에 많이 망설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오히려 설득하고 지지해주셔서 자퇴를 하고 무늬만학교 평일과정에 오게 되었어요. 사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무늬만학교에서의 1년은 태풍의 눈 같았어요. 안에서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무늬만학교 품을 벗어나면 나를 무시하는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지산이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자퇴한 뒤 무늬만학교 평일과정에 참여했다. 무늬만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학교생활이 즐겁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쁘지 않았고, 품의 활동은 좋지만 학교를 자퇴할 정도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고등학교 자퇴라는 것이 ‘정상’의 궤도를 벗어나 ‘비정상’이 되는 것 같아서 선택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런 고민 속에서 지산이가 무늬만학교 평일과정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아버지의 권유였다. 어차피 놀 거면 제대로 놀라고, 품에 있으면 놀기만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다. 자퇴를 한다고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인생 모르는 일이라고 설득하는 아버지 덕에 지산이는 무늬만학교 평일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무늬만학교에 다니면서 지산이는 순간순간 주변의 시선이, 자신의 상황이, 앞으로의 미래가 고민스럽고 불안했다. 그런 감정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응원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도록 도와주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산이에게 무늬만학교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과 배움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다.

“무늬만학교를 입학한 시기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무늬만학교 민주 시민 수업 중 세월호가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같이 걱정하다 구조됐다는 보도를 본 후 안도하며 수업을 다시 들었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분노와 함께 내가 뭔가 하지 못한다는 무기력과 열등감이 몰려왔어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 품의 친구들, 무늬만학교 학생들, 품의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부했던 과정이 기억에 남아요.”



무늬만학교 세월호 추모사업에 참여한 지산이의 자필 글

이 글을 적고 있는 나는 세월호 사건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분노에 차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답답해하던 지산이의 모습이 기억난다. 지산이는 무언가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런 생각은 무늬만학교 네팔 이동수업에서 더 강하게 찾아왔다.

“무늬만학교 수업 과정으로 네팔 마을에 들어가 2달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도 저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마주했어요. 네팔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노밖에 없더라고요. 분노만 할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했지요.”



네팔 이동수업에 참가한 무니만학교 평일과정 친구들

지산이는 세월호 사건과 네팔 이동수업 이후 공부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그해 바로 수능을 준비해 대학에 입학했다.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표현하고 알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대학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며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품 사람들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삶에 대한 태도를 마련할 자극과 동기를 얻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바라봐주는 사람들 덕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변화했다. 그런 품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지산이는 품이 있었기에 공동체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그에게 공동체란 곧 품이 아니었을까. 자신을 찾아내는 곳, 그곳이 바로 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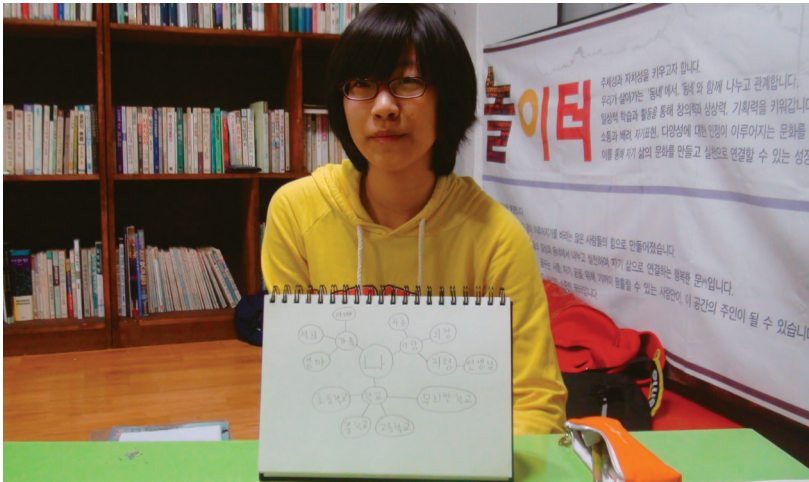


마을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청년

장서영

(2011~2012 무늬만학교, 2014 당당20프로젝트 참여)

서영이는 초등대안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동네 토박이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어머니를 통해 품을 알게 됐고, 품에서 활동을 계속하다가 청년이 되어 마을의 대안학교에서 일하게 됐다. 마을활동가의 자녀로 마을에서 살다가 마을로 취업한 것이다. 어머니와 품이 서영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했는데 서영은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삼각산재미난학교의 역사·문화·수업 중인 서영이

“엄마랑 품 때문은 아니야. 그냥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 사는 게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 계속 이 마을에서 살았고, 또 내가 멀리 나가는 것도 돌아다니는 것도 안 좋아해서. 아마 품을 만나지 않았어도 나는 마을에서 일했을 거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서영이가 품에 계속 온 이유가 궁금했다.

“학교에서의 장서영과 품에서의 장서영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었어.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현실감이 없었고, 필요성도 잘 못 느꼈고, 졸리고, 재미가 없었어. 하지만 품에서 하는 공부는 반대였어. 현재의 나와 연결되어 있기에

현실감이 있었고, 나에게 필요한 공부였어. 그리고 재밌었고. 의미를 찾고,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건 품에서의 경험 덕분인 것 같아.”

일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재미없다’ ‘하기 싫다’ ‘이걸 왜 하지’ 같은 생각을 하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서영이는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냈다고 한다. 품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품에서 활동한 시간은 삶에 의미 있는 배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십대일 때 품에서 활동하며 많은 지역 사람들과 단체를 만났어. 품을 통해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과 마을 안에서 활동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지. 그래서 계속 품에 있었어. 품에 있으면 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 실제로 품에서의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됐어. 매년 여름에 품 주주 자녀를 대상으로 가는 참땀은물살캠프에 참여하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책을 좋아해서 책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거든. 이런 경험과 관심사가 연결돼서 삼각산재미난학교의 도서관 교사로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 내가 내성적이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이잖아. 그래도 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자리들이 계속 있으니까 밝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과 표현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품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내 시야를 넓히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스스로에게 당당하도록 만들었어.”



침맑은물살캠프에 참여한 서영이와 아이들

대다수 사람들은 십대 시절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틈이 없다. 주어진 현실에 맞춰 살아내기 급급하다. 품은 십대 시절 흘러가는 생각과 일상을 붙잡아주는 공간이었다고 서영이는 말했다.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게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경험,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험

“품의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줬어. 밖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 말 안 듣는 애,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을 판단하고 평가하잖아. 하지만 품은 그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장서영’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줬어. 그래서 예전에도 지금도 품에 가면 안정감과 소속감이 느껴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실 우리가 선택한 대로 되는 경험은 거의 없잖아. 항상 누군가의 반대, 주변의 상황, 내가 처한 환경 같은 것에 의해 나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 하지만 품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다고 선택한 것을 온전히 해볼 수 있었지. 이런 경험이 쌓여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힘이 길러졌다고 생각해.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삼각산재미난학교도 아이들이 직접 시간표를 짜거든. 그리고 각자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직접 정하기도 해. 교사들은 아이들이 선택한 시간과 주제에 맞춰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지. 가끔은 곤란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이 시기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인 것 같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 존중받는 것이 ‘환대’다.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환대받을까? 그리고 언제 환대받을까? 나의 십대를 돌아보면 환대의 경험이 거의 없다. 성적이 좋지 않았고,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절대적 환대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요구나 기대에 부응한 다음에나 가능한 조건부 환대를 받는다. 그런 경험이 쌓여 우리는 타인에게 환대를 받기 위해 ‘자발적 복종’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진짜 내 삶을, 진짜 내 색깔을 찾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는 경험이 필요하다.

‘선택한 대로 될 수 있다’의 전제는 신뢰와 믿음이다. 인정받기 위한 ‘나’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는 경험. 결과와 의미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일은 많지 않다. 하면서 알아가고 찾아간다. 품은 활동하는 십대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만들어준다고 서영이는 얘기했다. 그 선택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표면적인 결과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정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을 품이 만들어주었고, 그 시간 속에서는 서영이는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힘을 길렀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섞이는 자리

“나는 품과 같은 공간이나 단체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 학교랑 안 맞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들 모두가 대안학교에 갈 수는 없잖아. 품은 누구라도 편하게 와서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지. 학교라는 틀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아이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주변을 둘러보면 청소년 시기에 품에서 활동했다면 삶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품 같은 곳이 우리 주변에 세세한 단위와 거리에 있으면 좋겠어.”

서영이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했던 말이다. 품에는 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도 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일상을 사는 십대들이 모

여 서로 자극받고 함께 변화해간다. 서영이는 마을에서 사는 게 너무 당연했다고 말했지만 품 안에 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여전히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보다 즐겁게 일상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서영이는 품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마을의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환대, 돌아봄과 탐색

백신영

(2015~2016 십대문화기획단 참여)

“기획단 첫 모임 때 여기는 미쳤다, 나 이곳에서 꼭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십대문화기획단에 참여하여 청년이 된 지금도 품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신영이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한 말이다.

“기획단 첫 모임 때 서로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름, 학교만 말하지 말고 다른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해보라고 했어요.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 나는 한 번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표현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이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름과 나이, 소속 정도만 말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라는 사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품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에 자신 있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한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또 한 가지 신선한 충격은 이름표(명찰)였어요. 원래 이름표는 미리 준비해놓잖아요. 그런데 품은 달랐어요. 항상 우리가 우리 이름을 적었어요. 저는 그것이 초대받지 못한 사람도 함께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미리 적혀 있는 이름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준비된 이름표를 갖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 역시 신영이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다. 신영이는 이것이 품의 환대 방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적는 이름표는 모두가 초대받은 사람이란 의미고, 모두를 존중하는 방식이다. 품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환영간판에 넣어 호명하고, 환영한다. 신영이는 품의 환대를 받고 품에 대한 신뢰와 활동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 환대로 시작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품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흘러갔다.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경험

“학교는 같은 공간에서 또래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뭔가 자극을 받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품은 달랐죠.”

학교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하는 친구들만 있어서 자극을 받기 어렵다고 신영이는 말했다. 그런데 품에 오면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 경기도에 사는 친구, 여러 가지 품 활동을 하는 친구 등 사는 방식이 제각각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품에서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며 생각이 넓어졌고 만나보지 못한 세상을 간접경험할 수 있었다. 품의 활동 경험이 쌓이면서 신영이는 공부와 배움이라는 것을 전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다.

“저한테 배운다는 것은 그저 제가 얻는 정보들을 지식화해서 입력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지식화해서만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말, 행동, 생각들을 보고 들으며 경험을 습득하고, 표현들이 다양해지는 과정 속에서 제 모습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그 언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평소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생각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이런 변화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품 선생님들도 얘기했고 저 스스로도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품에서 활동하는 동안 저에 대한 기록을 열심히 했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기획단 활동 중 마을의 선생님을 만난 신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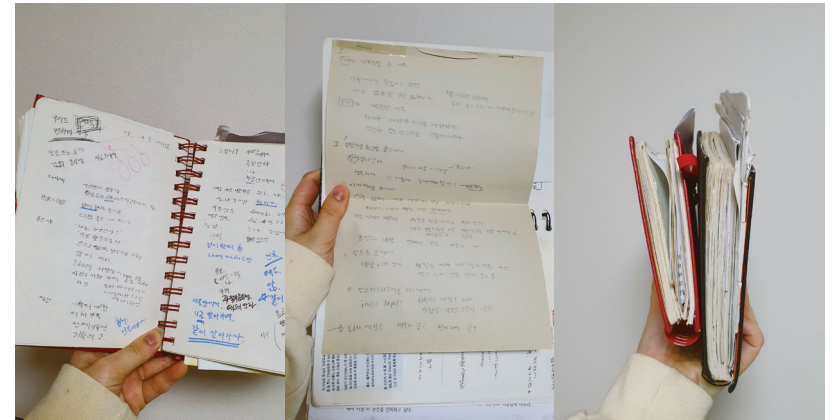
지구인을 주제로 축락 전시를 기획한 신영이



‘공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해 선생님이 말한 것,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기록이다. 품에서의 기록은 그런 것이 아니다. 품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자신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그래서 신영이는 자신의 변화를 기록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내 생각을 기록하는 첫 경험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도 하고 학급회장도 했어요. 그때도 기록을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결정사항을 정리하는 거였죠. 품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일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사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품에서 활동할 때 월마다 돌아보기를 하면서 내 활동과 생각과 일상을 돌아보고 글로 적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하는 정리와 기록보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기록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됐고 나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제 생각을 기록하며 나를 살피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요.”



신영이의 기록단 활동 노트

우리에게 익숙한 기록의 방식은 정해진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의견이 아니라 맞춰야 하는 정답과 정해진 결론이다. 나의 생각을 바라보고 정리할 기회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 신영이는 생각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에 익숙해지자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표현과 의도를 곱씹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그것을 정리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은 자신을 탐색하는 습관으로 이어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생의 고리를 만들어준 품

“품은 저에게 인생의 고리를 만들어줬어요. 저에 대해 돌아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나’라는 사람을 탐색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만들어줬어요. 나에게 대해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품에서의 시간을 통해 알게 됐어요. 지금의 나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 품에서 배웠지요.”

신영이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유형의 사람이라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취미활동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자기 안에 쌓여 있는 감정과 스

트레스도 돌아보지 않았다. 품에서 활동하며 마침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쌓기 시작했다. 지금 신영이는 음악을 듣는 취미가 생겼고 드럼을 두드리며 쌓인 감정을 풀어내곤 한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치고 힘들 때 감정을 돌아보고 그것을 풀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자주 가지 못하지만 품과 같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품의 역사와 사람이 흐르는 참맑은물살캠프

심현, 김채원, 이소율, 정해인*
(2006~2019 참맑은물살캠프 참여)

“1996년 대학 전공 실습으로 품을 처음 알게 됐어요. 당시 품에서 실습 때 했던 활동은 철새 탐험, 갯벌 탐험 같은 거였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른 실습 공간에서 못 하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보통 실습을 나가면 2박3일 정도 진행되는 캠프만 참석하면 됐는데 품은 사전과 사후 과정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는 품의 캠프와 캠프를 진행하는 방식에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계속 참여하게 됐지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권희정 선생님은 1996년 품을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 오고 있는 품의 주주이자 물살동이(물살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를 부르는 말)의 부모다. 품은 자연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왔다. 그 이유는 자연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다. 품이 진행했던 ‘삶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캠프는 청소년들과 강, 산, 바다를 여행하는 품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참맑은 물살캠프의 시원이다.

참 맑은 물살

곽재구

참 맑은 물살

발가락 새 혜적이네
 애기 고사리순 좀 봐
 사랑해야 할 날들
 지천으로 솟았네
 어디까지 가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신 허벅지 좀 봐

아무 때나 만나서

한 품 되어 흐르는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좀 봐

참맑은물살캠프는 품 주주 자녀를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3박4일 캠프로 곽재구 시인의 <참 맑은 물살>이라는 시에 영감을 받아 이름을 지었다. 2004년 주주 자녀 중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캠프가 시간이 흐르며 초, 중, 고등학생 주주 자녀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그 시간 동안 물살캠프를 지나간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7살 때 처음 참여한 친구는 18살이 되어 물살캠프 졸업을 앞두고 있다.

품의 주주 90% 이상이 품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그래서인지 물살동 이도 90% 이상이 품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품과 관계가 있는 부모님을 둔 아이들이 온다. 부모와 자녀가 품을 기억하는 활동은 다르지만, 그들은 물살캠프를 통해 품을 공유하고 세대를 순환하는 자리를 갖는다.



과거 품의 캠프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청년들 모습. 이제는 품의 주주가 되어 자녀들과 참맑은물살캠프에 참여한다



참맑은물살캠프 진행 모습

같은 기억의 공유

“물살캠프에서 만난 친구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매년 만나면서 서로가 커가는 모습을 봐와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그 연결고리 때문에 우리의 유대감이 더 깊은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살캠프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다였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며 우리끼리 연락하고 만날 수 있게 되니 서로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특별한 친구가 됐죠. 모이기 쉽지 않지만 일단 만나면 학교 친구들과는 다른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껴요. 왠지 모르게 설레기도 하고요. 나의 좋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라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참 맑은 물살캠프는 학교와 학원으로 바쁜 시간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모두 내려놓고 물 흐르듯 놀고 쉴 수 있는 시간, 매년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이예요. 지금의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데 기여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물살동이 친구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변했다. 3박4일 품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함께한 참여자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상을 보내지만 유년기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로, 고민을 나누는 동지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어려서부터 같은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너 어릴 때 이랬잖아, 하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은 느끼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 소중한 기억과 인연이 사는 데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은 사소하고 자잘한 기억을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권희정 선생님도 추억을 나눈 친구를 갖게 되는 것이 물살캠프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얘기했다. 학교와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적이나 친구관계 같은 현실적인 이해관계들에 얽혀 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추억할 수 없다. 하지만 물살캠프에서 3박4일 동안 자유롭게 논 기억은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즐거운 기억과 추억으로 남는다. 이 시간이 현재는 아이들에게 큰 의미로 와닿지 않을 수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처럼 흐른 시간 속에서의 변화

“물살캠프가 나에게 어떤 의미냐고, 어떤 경험을 만들어주었냐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부모님 권유로 자연스럽게 물살캠프에 가게 됐고, 나중에는 제가 좋아서 계속 갔어요. 물살캠프는 저에게 선생님들과 선배들, 친구들, 동생들을 만나는 자리였고 3박4일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물살캠프에 참여한 시간에서 어떤 ‘배움’을 얻었다고 꼭 집어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물살캠프는 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억이고,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큰 영향을 준 캠프라는 거예요.”

물살캠프는 흐르는 물살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캠프다. 아이들의 시간 역시 한 해, 한 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 시간 속에서 꼭 어떤 배움이나 의미를 발견할 필요는 없다. 학원, 공부, 부모님 등의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롭게 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기억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는지는 얘기하기 어려워도 물살캠프에 계속

오며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변화한 것들은 있다고 얘기했다.

“막내였던 우리가 이제는 물살캠ป์에서 가장 맏형, 맏언니예요. 처음 물살캠ป์에 갔을 때 선생님들과 형, 언니들이 우리를 잘 챙겨줬고 덕분에 캠ป์에서 더 즐겁게 놀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선배가 되니까 다른 참여자들의 역할도 생각하고 챙기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땐 내 의견이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살짝 서운했는데, 이제는 내 의견을 얘기하기보다 다른 동생들의 생각을 듣고 갈등이 생기지 않게 조정해주려고 해요.”

“처음에는 밤마다 품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회의하고, 마지막 날 우리들한테 편지를 쓰느라 밤을 새우는 것도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선생님들이 왜 피곤한지, 왜 4박5일 캠ป์를 하자고 우리 모두가 노래를 부르는데 하지 않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참여자지만 동생들을 잘 챙기고, 선생님들도 챙길 수 있도록 더 신경 쓰지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변한다. 그 변화는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물살동이 친구들은 처음 물살캠ป์에 참여했을 때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배려해준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경험과 기억이 현재의 태도를 만들었다. 작년 물살캠ป์ 때, 선생님들은 이 친구들에게 큰 선물을 받았다.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손편지를 쓴 것이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마지막 밤 모든 친구들에게 줄 상장 손편지를 쓰는 것처럼 모든 선생님들에게 손편지를 썼다. 이 물살동이 친구들은 10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흘러왔다. 그 시간 속에서 물살동이 친구들은 동지가 되었고 물살캠ป์에서만큼은 선생님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품 선생님들과도 동지로서 함께 시간을 쌓아가고 있다.



물살캠ป์ 마지막 날 선생님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적어 준다



반겨주는 사람, 열려 있는 공간

서인석

(2007 놀이터 기획단, 2009 품 인문학교 참여)

“청소년일 때 만났던 폼과 지금의 폼이 다른 게 있냐고? 음, 없어. 똑같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폼이야. 나는 친구 형의 소개로 폼에 처음 오게 됐어. 처음에는 하는 것 없이 한 달 동안 라면만 먹고 왔어. 그렇게 매일 가서 라면만 먹고 오는데도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갈구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없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냥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 갔는데 폼 선생님이 축제 부스를 운영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9번째 추락에 참여하면서 폼에서 활동을 시작했어.”

인석이 형은 공부에 취미가 없고 학원도 다니지 않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평소에 친구 집, 길거리, 피시방, 당구장 등등을 누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같이 놀던 친구 형이 폼을 알려줬다. 폼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항상 열려 있는 공간에서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폼에 왔다고 한다. 친구 집이나 길거리 외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생겼고 그렇게 계속 폼에 드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두 명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뭔가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를 했어. 여섯 명이라 ‘여섯 개’라는 팀 이름으로 폼에서 제대로 활동을 시작했지. 추락을 시작으로 다른 폼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했고, 이후에는 폼의 활동 구조가 변해서 놀이터, 문화존, 어울림마당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연결되고 확장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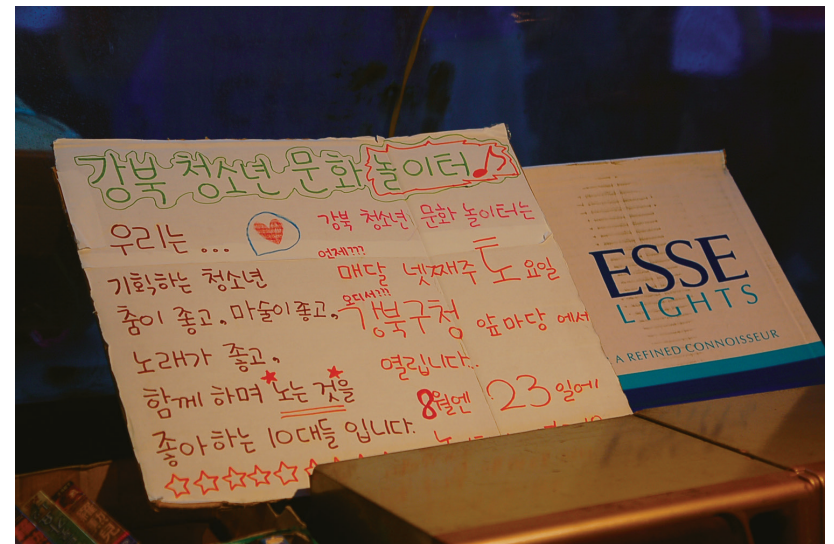
폼에 처음 왔을 당시 인석이 형 모습

인석이 형은 ‘여섯 개’라는 팀 이름으로 폼에서 활동했다. 중간에 친구들의 상황과 선택들이 달라지며 ‘세 개’라는 이

름으로 바뀌었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일주일에 여섯 번은 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함께’의 경험

“폼에서 기억나는 활동과 프로젝트라면 추락 10주년, 놀이터 축제, 수유역 역사 안에서 한 버스킹, 모금콘서트 준비하며 공간 만든 것 등등 생각나는 것이 너무 많지. 그 과정을 떠올려보면 전부 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며 만들어냈어. 폼에 오기 전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아. 함께하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생각이 보태져서 즐거움이 커졌지. 그 ‘함께’의 경험이 나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이야.”



강북 청소년문화놀이터 기획단이 작성한 기획단 소개 문구



인석이 형이 기획단으로 참여했던 2009년도 추락 오프닝

인석이 형은 품에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며 사람이 주는 에너지를 많이 느꼈다. 친구, 선배, 선생님, 후배 등 자신이 만나고 접촉하는 단위가 다양해지며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 그 속에서 인석이 형은 자신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느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고민했다.

“품에는 나에게 질문하고,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어. 질문과 응원,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품에서 축제, 인문학, 마을을 만나고 공부하며 생각과 경험을 늘려갔던 것 같아.”

인석이 형은 품에서 자신을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삶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품에서 했던 경험은 자신을 발견하고, 현재 삶의 태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인석이 형은 함께하는 경험과 공동체 경험이 꼭 필요하다면서 십대들이 편하게 죽치고 모여 있을 공간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십대들이 죽치고 모여 있을 공간

“모금콘서트 이전에는 우리만의 공간이 없었어. 예전 품 지하 사무실은 편하게 열려 있는 공간이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자 활동공간이었으니까. 선생님들과 부대끼는 것도 좋았지만 서로 불편한 것도 있었지. 애들이 계속 들락거리고 시끄럽게 떠드니 선생님들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우리도 선생님들과 계속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게 힘들었어. 그래서 품 선생님들도 우리도 공간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고 우리들의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한 모금콘서트를 기획했지.”

품의 예전 지하 사무실은 아이들과 품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의 활동공간과 선생님들의 업무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가고 난 이후에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업무를 방해할까 봐 행동이 조심스러웠다. 서로가 독립된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필요성은 십대들의 전용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콘서트 진행으로 이어졌다.

“모금콘서트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천만 원 정도를 모금했어. 마을의 여러 선생님, 품의 주주, 구청 관계자, 마을 시장과 상가 등 안 간 곳이 없었던 것 같아.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우리들의 공간을 만들 수 있었지.”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라는 문구는 모금콘서트 슬로건이었다. 십대들은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꿈꿨고, 그 꿈은 그들의 노력에 다양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보태 현실이 될 수 있었다. 모금콘서트를 통해 만들어진 십대들의 활동공간은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이름이 정해졌고 그 공간에서 아이들은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강북구에 처음으로 할 일 없는 십대들이 찾아와서 죽치고 모여 있을 공간이 생긴 거야. 할 일 없던 애들이 모여서 해보면 좋을 일들을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모여서 먹고, 놀고, 쉬고, 활동하는 복합적인 공간이 생긴 거지. 우리끼리 순번을 정해 공간지기를 맡아서 공간에 오는 친구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들을 기획하기도 했어. 그냥 공간에 오면 항상 애들이 있으니까 자기 친구들 불러서 같이 모여 놀고 그랬지.”



십대들의 공간만들기 프로젝트 모금콘서트 '이천' 당일 모습



기획단 친구들이 공간 외부를 꾸미는 모습

당시 강북구에는 청소년수련관 하나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전용시설이 전무했다. 그리고 2020년이 된 현재도 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석이 형은 처음엔 할 일 없는 십대들이 모이더라도 결국 그 할 일 없는 애들이 모여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리고 품은 그 할 일 없는 십대들이 찾아와도 반갑게 맞아주고 인정해주는 곳, 잔소리 듣지 않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할 일 없는 십대들이 해보면 좋을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질문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품이야’라는 말의 뜻을 알 것 같다. 모든 십대들을 반기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자리가 품이라는 뜻 아닐까. 인석이 형이 만난 품이 현재도 똑같다고 말해주셔서 참 고맙다.



마을공동체의 원형을 지키는 품

우수명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론적 마을을 현장에서 풀어내고 있는 단체

“품은 제가 이론으로 지향하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을 현장에서 풀어내고 있는 곳이에요.”

우수명 선생님은 1993년 처음 품을 만났다. 당시 선생님은 비행청소년을 담당하는 보조사회복지사로서 빈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있었다. 기존 사회복지 방식인 개인에 대한 원조와 지지가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품을 처음 알게 됐다.



이론과 현장의 연결고리 우수명 선생님

“품에서 한 강의를 들으며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당시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도전들을 시작했고, 후배들에게 품에서 활동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많은 후배들이 품과의 인연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죠.”

우수명 선생님은 품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활동을 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 선생님은 계급화된 구조를 깨는 것이 마을 기반의 활동이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론을 현장에서 이상적인 활동으로 풀어내고 있는 곳이 품이라고 말했다.

“행동은 문화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타인에 대한 억압기제로 작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품에는 타인을 반갑게 맞아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

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은 계급화예요. 우리에게도 그 계급화된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문화들이 있죠. 저는 그 계급화된 구조를 깨는 것이 마을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마을을 기반으로 한다는 바탕에는 인간이 자유롭고 서로 평등하다는 생각이 놓여 있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와 토양이 필요해요. 서로 연대하는 방법을 알고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그 자기결정권을 권력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은 제가 지향하는 마을의 원형과 지향을 현장에서 풀어내며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론과 이상을 품을 통해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렇기에 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계급화와 경쟁이라는 문화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우리는 항상 경쟁했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공부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보이지 않는 계급을 계속해서 나눠왔다. 그래서 우수명 선생님은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자기결정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청소년 시기부터 연습해야 한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이 자기결정권을 갖게 하는 곳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스템 속에서 계속 경쟁해야 하죠. 저는 이렇게 계속 경쟁해야 하는 문화와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으로 쪼개져 흩어져 있는 모습을 원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지요. 개인이 실패를 실험하며 성장하는 과정의 문화적 토양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을이 중요해요. 우리의 복지는 지금도 분절되어 있고, 원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권력은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것을 구조화시켰고, 그 구조 속에서 개인은 자신을 탓하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 경쟁 중심의 환경에서 우리는 쪼개져 있다. 예전 부족사회, 왕정의 역사에는 눈에 보이는 계급과 권력이 존재했다. 현재 우리는 계급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은 이전보다도 더 단단해졌다. 이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수명 선생님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급사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중요해요. 그리고 연대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의 학교 교육은 그런 역할을 못 해요. 우리 사회 청소년들은 시키는 것을 하는 데 익숙해요. 과거 청소년들보다 많은 것을 체험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훈련이 안 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비교 대상이고, 그들의 자존감은 남과의 비교 우위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세월호 아이들은 왜 스스로 결정해서 탈출할 수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에게는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연대를 하기 위해선 연대의 경험이 필요하다. 우수명 선생님은 그 연대의 경험이 처음 공동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시키는 대로 따르고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잊게 만든다. 그렇기에 많은 것들을 체험한다고 해도 그 역시 자기가 선택한 경험이 아니기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할 수 없는데 품에서는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는 자기결정의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품은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이에요. 품에서 하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서로 연대하게 하고, 삶의 연관성을 만들지요. 그것이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청소년들은 그 시기 품에서 했던 그 문화적 경험을 통해

각자의 자유의지를 발견하고, 원하는 것을 찾고 경험할 수 있어요.”

우수명 선생님은 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연대의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품의 많은 활동들에 기획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자신들이 진행하는 모임도 기획하고, 강북구청 앞에서 열리는 청소년 축제를 기획하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들의 활동과정을 직접 기획하여 선생님들과 상의하기도 한다. 그렇게 합의한 기획은 혼자서 실현할 수 없다. 서로의 생각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연대하게 된다. 우수명 선생님은 품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자기결정권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품은 이러한 가치들을 끊임 없이 쌓아오고, 기록해오고, 공유해온 단체라고 했다.



2006년도 청소년문화복지 워크숍 활동기 회의 모습

오랫동안 대안적 길과 가치를 만들어온 단체

“다른 NGO와 비교하면 품은 28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안적 길과 가치를 만들어온 단체지요. 개인에 대한 원조와 지지가 중심인 사회복지 방식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방식을 만들어왔고, 문화복지아카데미

나 사회복지정보원 정보화 캠프 같은 곳에서도 항상 금기를 깨며 운동하고 사람들이 흔들었어요. 네팔 NGO 활동을 할 때도 원조와 지원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사회복지와 국제 NGO 활동이 아닌, 마을에 들어가 주민이 되어 그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고 자생력을 만드는 NGO 활동의 가치를 만들었어요.”



네팔 청년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모습

폼은 28년 동안 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온 단체라고 우수명 선생님은 평가했다. 익숙한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익숙한 문화와 환경에 저항하며 폼의 방식으로 폼의 고유한 가치와 길들을 만들어왔다고 했다.

“저는 역사와 시간만이 만들 수 있는 고유의 존재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가치예요. 예를 들면 저는 20대 때 폼을 처음 만났고, 제 아이들은 참맑은물살캠프를 통해 폼을 만났지요. 이런 경험은 역사와 시간만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시간이 주는 역사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이 매우 중요해요.”

우수명 선생님이 말한 역사와 시간만이 만들 수 있는 고유의 존재와 가치는

‘순환과 연결’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환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폼은 28년 역사를 이어오며 세대의 순환, 사람의 순환, 가치의 순환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폼의 지향과 가치는 끊기지 않고 연결됐다. 사람도, 상황도, 사회도 변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수명 선생님은 폼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가치를 이어온 것은 기록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사만 돌아봐도 우리는 기록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금속활자, 한글,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만 예로 들어도 우리가 기록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폼도 자신들의 가치와 활동을 기록하려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폼의 대안적 길과 가치가 계속 이어지고 지켜졌겠죠. 28년 동안 그 역사와 가치를 이어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품

품이 28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품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도움이 없었다면, 질책이 없었다면 품은 이 긴 역사를 이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 품의 십대 친구가 청년이 되어 품의 활동가로 이어지고, 품의 자원봉사 대학생이 부모가 되어 자신의 아이를 품 캠프에 보낸다.

품이라는 단체와 조직이 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 품의 가치와 지향과 정신은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품의 고민과 활동을 담은 수많은 자료들,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글이 품의 가치와 지향을 이어왔다. 품은 올해도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기록하며 지향과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동북권 아카이브

품을 품은 사람들

지은이 정규민

발행일 2020년 12월 10일

발행처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주소 (01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창동 아우르네 2층

전화 02-906-2018

이메일 info@dbnpo.kr

홈페이지 www.dbnpo.kr

디자인 아리에뜨 ariette.co.kr

*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